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이번 주 금요일 제자 양육 종강합니다. 지난 2년간 귀한 훈련 잘 감당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복이 충만하길 축복드립니다.
3. 12월 22일 주일 성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4.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저녁 8시에 모여 식사와 친교의 시간 함께 갖고 예배 드립니다.
5. 남.여 전도회 임원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남전도회: 회장/한규철, 회계/박래석
 루디아 여전도회: 회장/한미숙, 회계/조은영
6. 목장 모임을 통해 복된 교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목장 12월 15일 주일 / 김종원(하영) 형제님 자택
 미얀마, 니카라과 목장 연합 12월 14일 토요일 / 한광기 장로님 자택
7. 연말 재정 모임을 알려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2월 8일 주일 오후 5시에 정기 제직회로 모입니다.
 12월 29일 주일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 있습니다.

12월 예배 위원

안 내	박래석		박승화			
기 도	한정임(1)	한규철(8)	김정신(15)	한미숙(22)	조창(29)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교회 학교	청년회	수요 제자 양육	금요 제자 양육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7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저희 생명샘 장로교회 홈페이지에 찾아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생명샘 장로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보려는 귀한 주님의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루 하루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본받아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의 힘과 영광이 임재하여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영광을 나타내려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 일 예 배 2024년 12월 8일 오후 1시

묵상 기도 / 다같이

*찬송 / 성도여 다 함께 / 찬송가 29(신) 29(구)

*성시 교독 /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곧 오소서 임마누엘 / 찬송가 104(신) 104(구)

기도 / 한규철 집사

성경 봉독 / 베드로전서 1장 23절—2장 3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 박화신 목사

찬송 /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 찬송가 112(신) 112(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4절 / 찬송가 134(신) 84(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말씀 요약

1.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감사입니다. 다시 태어나 살고 있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씨지 아니할 씨(말씀)로 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2. 따라서 그 '씨'로 된 사람들은 당연히 사모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반(反)하는 것이기에 조금은 힘든 것 같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3. 그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픈 것이며 그 아픔은 권세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3-24년 표어

행하는 교회

> 뿌리를 박으라

골로새서 2장 6-7절

> 세움을 받으라

6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 굳게 서라

지난 주일 설교 요약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 요 13:34-38

1. 스승의 명예와 권력만을 흠모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선생님의 삶의 방식이나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는 제자들이 꽤 많이 있지요. 예수님에게도 마찬 가지였습니다. 아니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진심에 관심을 갖고 따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2. 남들이 볼 때에 명백하게 실패한 스승일 수 있는,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정말로 사랑해 본 스승만이 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3.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온유와 겸손이지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니 자신의 모든 것을 정성껏 쏟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에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바보 같은 것이 아니고, 혹은 부드럽고 포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신적인 것이며 권세요 통치입니다.
4. 창조주 절대자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에게는 비천한 몸을 입으신 형편 없는 사건이었지만 죄인들을 살리시는 일이기때, 이 사랑(온유, 겸손)은 권세요 통치인 것입니다.
5. 이제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특권인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열심이 없다면, 바로 그것이 바보 같은 존재의 모습이 아닐까요?